

대도시 저소득층 여성의 유방암 수검 행위 예측 요인

황라일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본 연구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수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유방암 수검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방암 위험 요인 관련 특성, 보건의료이용 관련 특성을 개인적 특성으로,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 의도, 사회적 영향, 동료 규범, 사회조직망, 보건의료이용접근성을 인지적, 환경적 요인으로 포함시켜서 유방암 수검 행위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서울시 S구 5개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여성으로 먼저 저소득층 여성의 유방암 수검 행위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설문 문항을 보완하고 양적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구조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03년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19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회의실 또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30~70분간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유방암 과거력이 없는 여성 230명이었고, 자료 수집 기간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2004년 1월 3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저소득층 여성의 지난 2년간 유방암 수검 행위 참여율은 27.39%였다.
- 2) 유방암 수검 행위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간에 개인적 특성 중에는 연령, 유방 질환 경험, 암 진단, 보건의료기관방문, 만성질환, 건강검진, 자궁경부암검진, 유방자기검진, 개인의 내적 인지 요인 중으로 유익성, 장애성, 자기효능감, 체념적 신념, 의도가, 환경적 요인 중에는 사회적 영향, 동료 규범, 사회조직망, 보건의료이용접근성이 유방암 수검 행위 참여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방암 수검 행위 예측 요인 중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유방질환경험, 암 진단, 건강진단, 유방자가검진이, 인지적, 환경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체념적 신념이 제시되었다. 즉 젊은층, 유방질환경험이 있는 집단, 암 진단을 받은 집단, 지난 2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은 집단, 유방자가검진을 수행한 집단은 유방암 수검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체념적 신념이 낮아질수록 유방암 수검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저소득층 여성의 유방암 수검 행위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며, 유방암 수검 행위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에 감수성을 제외한 인지적, 사회적 환경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개인의 내적 인지 요인 즉, 자기효능감과 체념적 신념이 유방암 수검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체념적 신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층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접근 전략의 모색을 제언한다.